

출 장 복 명 서

- 중국 하얼빈 -

2008. 10

토지·주택연구실
최 혁 재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한·중 국제학술심포지엄(중국 동북농업대학·강원대학교 주최)
“동북아 농촌개발과 지역발전”의 주제발표 및 토론
- 발표제목 : 한국 농업·농촌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2. 출장기간

- 출장기간 : 2008. 10. 21(화)~10. 25(토) 4박 5일

3. 출장자

- 토지·주택연구실 연구위원 최혁재

4. 출장지역

-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5. 출장일정

일 정	체 류 지	주 요 일 정
10. 21(화)	-	인천 출발
10. 22(수)	하 얼 빈	심포지엄 참석
10. 23(목)	하 얼 빈	농촌개발 현장견학
10. 24(금)	장 춘	이동 및 농촌견학
10. 25(토)	-	귀 국

II. 출장내용

1. 한·중 국제심포지엄 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08. 10. 22(수) 8:30~17:00
-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동북농업대학 회의실
- 동북농업대학(경제관리학원) 및 강원대학교 공동주최

2) 발표논문 및 발표자

- 당의 17기 3중전회(곽상우 동북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원장)
- 한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정책(장순희 강원대학교 교수)
- 현대농업건설에 관한 논의(이우화 동북농업대학 교수)
- 한국의 농촌개발실태와 지역사회의 영향(김종섭 강원대학교 교수)
- 한국 지방정부의 경제개발비 결정 연구(김성희 강원대학교 교수)
- 흑룡강성 식량유통체제 개혁의 회고와 전망(왕두춘 동북농업대학 교수)
- 흑룡강성 유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이취하 동북농업대학 교수)
-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정정화 강원대학교 교수)
- 흑룡강성 농업기초시설이 식량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조치(주혜추 동북농업대학 교수)
- 한국 농업·농촌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흑룡강성 사회주의 신림구 건설(장천매 동북농업대학 교수)

2. 주제발표 및 토론결과

- 하얼빈시는 중국 최북단에 위치하는 헤이룽장省의 省都로서 면적 약 53,000km²에 인구 975만명에 달하는 도시
- 11개 주제발표 중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지난 10. 12 폐막된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에서 채택한 “농촌개혁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 결정”에 대한 발표였음(발표자 : 동북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곽상우 원장)
- 17기 3중전회는 1978년 12월에 있었던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결정한지 30주년이 되어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농촌문제에 가장 큰 무게를 실어 앞의 농촌개혁방안을 핵심안건으로 상정, 통과시킴
 - 3농(농업·농촌·농민)문제 해결은 당 전체 정책에서 중요한 것 중의 중요한 것(重中之重)이라고 천명
- 농촌개혁발전의 목표로 식량안보 문제와 토지관리제도 개선, 농촌 기본경영제도 개선, 농업보호제도 추진, 도농일체화 방안, 농촌금융제도 현대화 등을 설정
- 토지관리제도 개선에서는 토지경작권 양도를 허용하여 농지집단화와 기업농을 유도하고 생산력 제고를 도모
 - 30년전 개혁개방으로 국가소유 집단농지를 분할하여 농민에게 분배한 토지경작권을 다시 집단화하여 생산력을 제고하려는 목적
 - 그러나 농지소유 편중, 영세농민 몰락에 대한 일부 우려로 지방정부의 엄격한 농지보호 및 농지최저선 고수를 조건으로 하여 통과
-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 95% 수준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대해 생산 및 재고목표를 설정하고 지원금을 확대하도록 하며, 해외식량기지 건설 등을 위한 기금의 확대·조성을 도모
 - 5년 연속하여 식량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식량위기에 대비

하려는 정책의지

- 호적제도를 개편하여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구분을 폐지하고 통일된 거주민 호구제도를 도입
 - 1949년 도입된 현행 호적제도는 농민과 도시민의 구분이 후손까지 세습되어 신분차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 초래
 - 2억명의 농민공을 도시거주를 양성화하고 도농일체화를 도모
 - 논의만 되고 구체적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발표 및 토론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조치는 개혁개방 30년 동안 누적된 도농격차와 농촌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농촌개발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9억 농민을 소비기반으로 성장시킴으로써 내수를 진작하여 수출둔화를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아울러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태연한 자세로 대처하며, 그 극복전략을 내부 농촌개발에서 찾는 중국지도자들의 심모원려가 인상적임
 - 3중전회에 앞서 지난 9월말 후진타오 주석은 안휘성, 윈자바오 총리는 광시좡족 자치구의 농촌을 방문하여 농민들과 농촌개혁방안을 논의

3. 농촌개혁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 결정(당 17기 3중전회)

□ 주요내용

- 새로운 정세하에 농촌개혁발전 추진의 중대한 의의
- 농촌개혁발전 추진의 지도사상, 목표임무, 중요원칙
- 농촌개혁발전 추진의 중요한 전략계획
 - 개혁 창신을 대대적으로 추진, 농촌제도건설의 보장
 - 현대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킴,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력 제고
 - 농촌공공사업의 발전 가속화시킴, 농촌사회의 전면적인 발전 촉진
 - 당의 영도를 개선 및 보장하여 농촌개혁발전 추진에 튼튼한 정치 보장 제공

□ 농촌개혁의 성과

- 인민공사를 폐지하여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통합적인 양면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농산품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농업세를 취소하고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어 국정과 사회생산력 발전요구에 부합되는 농촌경제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시킴
- 식량생산이 거침없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고, 농산품 공급이 날마다 풍부해지고, 농민의 수입이 대폭 증가되고, 가난한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발전하고 있고, 자력으로 13억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함
- 향진(鄉鎮)기업이 현저히 발전하고, 작은 시·군도 왕성히 발전되고, 농촌시장이 번영하고, 농촌노동력이 대규모로 이전 취업하고, 수억의 농민노동자가 산업공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중국 특색의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시기의 공농연맹(工農聯盟)을 공고하게 함
- 농촌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이 끊임없이 보장되고

사회사업이 가속적으로 발전되어 수많은 농민들의 사상도덕수준, 과학 문화수준과 건강수준이 현저히 제고됨

- 농촌에서의 당의 건설이 끊임없이 보강되고, 촌당조직(村黨組織)을 핵심으로 한 촌급조직의 세트건설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어 당이 농촌에서의 집정기초를 튼튼하게 다짐

□ 농촌개혁의 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개선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탐색을 진행
- 국민의 생활수준을 의식부족에서 소강(중류수준)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하였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에 커다란 공헌을 함
-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을 극복하고 사회안정에 튼튼한 바탕을 구축
- 중국 특색인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 이론체계를 형성하는데 소중한 경험을 쌓음

□ 농촌개혁발전 30년의 기본경험

- 농업·농촌·농민문제를 잘 해결해 내는 것을 당 작업의 중중지중(重中之重)으로 함
- 농업의 기초지위를 지킴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방향을 지킴
- 중국 특색의 농업현대화의 길을 고수함

- 농민의 물질적 이익과 민주권리를 철저히 보장함

□ 농촌개혁발전의 자리매김(네개 구절)

- 사상을 계속 해방시키되 농촌개혁발전의 위대한 실천과 결합하여 대담 탐색하고 개척하며 새로운 이념과 사고방식으로 농촌발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당의 새로운 이론과 실천의 창출에 끊임없는 원천을 제공함
- 개혁개방을 고수하되 농촌개혁을 중요시하고 성향(城鄉)개혁을 총괄적으로 계획하는데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농촌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가하여 전체 경제사회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함
- 과학의 발전을 추진하되 반드시 농업발전이란 기초를 보강하여 국가 식량안전과 주요 농산품의 유효공급을 확보하며 농업증산, 농민수입 증가, 농촌번영을 촉진하여 경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데 유력한 지지를 제공함
- 사회의 조화로우름을 촉진하되 반드시 농촌온정의 전반적인 정세를 고수하여 농촌사회 관리를 개선하고 사회공평과 정의를 유지하며 농민이 평안히 살면서 즐겁게 일하도록 보증해 주어 국가의 장원의 평안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닦음

□ 농촌개혁발전 추진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

- 농촌경제체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농업생산경영 조직화가 낮고 농산품시장체계, 농업사회화 복무체계, 국가의 농업지원·보호체계가 온전하지 않으며 성향(城鄉)경제사회발전의 일체화체계 구성에 대한 요구가 긴박함
- 농업발전방식은 여전히 면밀하지 않고 농업기초시설과 기술장비가 낙

후되고 경지가 대폭 감소되고 인구자원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고 기후 변화의 영향이 격화되고 자연재해가 빈번이 발생하고 국제식량공급과 수요의 갈등이 심해지고 국가식량안전의 보장과 주요 농산품의 수급 균형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음

- 농촌사회사업과 공공서비스 수준이 비교적 낮고 지역발전과 성향(城鄉) 주민의 수입 차이가 증가하고 있고 농촌의 낙후된 모습을 바꾸기가 어렵게 됨
- 농촌의 사회이익 구성이 거대한 변화를 거쳤고 일부 지방의 농촌 말단 조직이 느슨해져 농촌의 민주법제 건설, 말단조직 건설, 사회관리를 보장하는 임무가 어렵고 무거움

- 농업기초가 여전히 약하고 보강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 농촌발전은 여전히 침체되고 받침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 농민의 증수(增收)는 여전히 곤란하고 가속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 농촌개혁발전이 처한 역사적 위치에 대한 학문적 판단

- 공업이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을 이끄는 발전단계에 들어섬
- 전통적인 농업을 가속 개조하고 중국 특색의 농업현대화의 길로 가는 중요한 시기에 들어섬
- 도시-농촌의 이원적 구조를 타파하고 도시-농촌 경제사회발전 일체화 구조의 중요한 시기에 들어섬

□ 농촌개혁발전 추진의 지도사상

- 당의 17대 정신을 관철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기발을 높이 들고 등소평이론과 “세계 대표”사상을 지도방향으로 하여 과학적인 발전관을 관철하고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전략의 임무로 하고
 - 중국 특색의 농업현대화의 길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 성향(城鄉)경제사회발전 일체화의 새로운 구조를 근본수요로 하고
- 공업이 농업을,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고, 많이 베풀고 적게 거두는 방침을 고수하고,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고, 농업기초를 보강하고, 농민수입을 증가시키고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수많은 농민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농촌경제사회를 신속히 발전시킴

□ 2020년까지 농촌개혁발전의 기본목표와 임무

- 농촌경제체제를 더 건전하게 하고, 성향(城鄉)경제사회발전 일체화체제를 기본적으로 건립
- 현대농업의 건설이 현저히 발전되어 농업 종합생산력이 현저히 제고되고 국가식량안전과 주요 농산품의 공급이 유효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농민 1인당 수입이 2008년의 2배가 되고 소비능력이 대폭 상승하고 절대적인 빈곤을 기본적으로 없앴
- 농촌 말단조직의 건설이 더 보강되고 촌민자치제도가 더 완전해지고 농민민주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함
- 성향(城鄉)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가 현저히 발전되고 농촌문화가 더 번영되고 농민의 기본문화권익이 한 단계 더 확정되고 농촌에서 모든 사람에게 양호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농촌의 기본보장과 기본의료위생제도가 더 완전해지고 농촌사회의 관리체계가 한 단계 더 완전해지도록 함

- 자원절약형, 친환경 농업생산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농촌주거와 생태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이 끊임없이 증가함

□ 목표와 임무실현에 준수할 중요원칙

- 반드시 농업의 기본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보장시키며 10여 억 인구의 식량문제를 국가장원적인 통치의 첫번째 중요한 문제로 삼는다
- 반드시 농민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고 수많은 농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을 잘 실현시키고 잘 유지시키고 잘 발전시키는 것을 농촌 전체사업의 출발점과 목표로 한다
- 반드시 농촌의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처음부터 끝까지 개혁창조를 농촌발전의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한다
- 반드시 성향(城鄉)경제사회발전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형 공농(工農), 성향(城鄉)관계의 구축을 현대화건설 추진의 중대한 전략으로 한다
- 반드시 농촌사업에 대한 당의 관리를 고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농촌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의 보장과 개선을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정치보장으로 한다

□ 삼대배치

새로운 농촌개혁발전의 “경로도(經路圖)”를 구상한다

- 개혁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 농촌제도 건설의 보장
- 현대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종합생산력을 제고
- 농촌공공사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촌사회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

□ 개혁발전의 대대적 추진, 농촌제도 건설의 보장

6개 항목의 농촌제도 건설

- 농촌기본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개선한다
- 규범화된 농촌관리제도를 개선한다
- 농업지지보호제도를 개선한다
- 현대 농촌금융제도를 건립한다
- 성향(城鄕)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일체화제도를 건립한다
- 농촌 민주관리제도를 개선한다

□ 현대농업의 적극적 발전, 농업 종합생산력 제고

5가지의 요구

- 고생산
- 고품질
- 고효율
- 생태
- 안전

3개의 제고항목

- 토지산출율
- 자원이용율
- 노동생산율

4개의 경로 또는 방식

- 농업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다
- 농업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창출
- 농업 물질기술장비의 보장
- 농업 산업체계의 개선

3개 능력의 보장

- 농업 risk저항력
- 국제경쟁력
- 지속가능한 능력

현대농업발전의 조치 BIG 7

- 국가식량안전의 확보
- 농업구조 전략적인 조정 추진
- 농업과학기술의 새로운 창출
- 농업기초시설 건설의 보장
- 신형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의 건립
- 농업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 농업 대외개방 확대

사회 사업발전 조치 BIG 8

- 농촌문화가 번영하도록 발전시킴
- 농촌교육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 농촌의료보건사업 발전 촉진
- 농촌사회보장체계 개선
- 농촌기초시설과 환경건설 보장
- 농촌 빈곤지역 지원 및 발전 촉진
- 농촌 방재·감재(減災)능력 건설 촉진
- 농촌 사회관리 강화

□ 당의 영도를 강화·개선하여 농촌개혁발전 촉진에 튼튼한 정치보장 제공

5개 항목의 당의 건설과 배치

- 당의 집정능력 건설과 선진성 건설을 주체로 한다.
- 농촌작업체제에 대한 당의 영도 개선
- 농촌 말단조직 건설 강화

- 농촌 말단 간부층건설 강화
- 농촌 당의 염정한 정치 보강
- “육칠팔오 전략조치”